

## [2019학년도 강원도 임용 합격수기]

1차 점수	교육학(20)	14.67	1차 총점	65.34 (컷 55)
	전공(80)	50.67		
2차 점수	실기(30)	29	2차 총점	96.07
	수업시연(20)	19.07		
	심층면접(50)	48		
최종 총점 161.41 (최종컷 145.81) +15.6				

- 목차 1. 초수 불합격요인 분석
- 2. 지역선택 기준
- 3. 공부방법(교육학, 전공1,2차)
- 4. 기타
- 5. 합격수기를 마치며

### 1. 초수 불합격요인 분석

저는 2018학년도에 첫 시험을 보고, 2019학년도 재수로 합격했습니다. 디자인 전공으로 학부 때 교직이수를 하고 미술교사가 되고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2018학년도 8월에 졸업했습니다. 교직이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동기들에 비하여 절대적인 시간이 많았으나, 미술 임용에 절대적인 시간투자를 하지 않고 어설피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막학기에 그래픽 조교와 논문, 시간강사(자유학기, 방과후 수업, 중3 정규수업), 미술관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바쁜 생활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라며 자신과 합리화를 시키며 실패의 원인을 돌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한 저의 불합격요인은 첫째, 실틈없이 바쁜 생활을 해야 공부도 바짝 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생활 패턴. 둘째,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닌 보여주기식의 공부방법. 셋째, 부정적인 마인드에 있었습니다. 재수 이상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본인의 불합격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수	재수
일 병행	일 병행으로 절대적인 공부시간 확보X	한 달에 한 번 미술관 아르바이트(기분전환)
생활패턴	불규칙한 생활패턴	규칙적인 생활패턴
마인드	자존감 바닥,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 -친구들과의 만남을 끊지 못함 -‘나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나같이 공부하면 붙을까?’ ‘잘 모르겠어.’ -신세한탄하기(난 수험생 나부랭이야)	자존감 UP,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말 -친구들과의 만남X -‘나 올해는 붙을 것 같아.’ ‘올해는 반드시 합격할거야.’ ‘붙어서 한 톱 쏠게.’ -수험생활 즐기기(소소한 행복찾기) -모든 사람이 ‘해가 진다’라고 말할 때 ‘별이 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공부방법	보여주기식의 공부방법 -자료 부자 -스터디 > 본인 공부 -남들이 하는 스터디 다 따라하기	합격을 위한 공부방법 -자료 최소화 -스터디 < 본인 공부 -나에게 필요한 공부만 찾아서 하기
공부환경	1인 독서실 -가끔 공부환경의 변화를 주기위해 한 번쯤 가볼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집 앞 도서관. 칸막이 또는 카페형 독서실 -마음의 친구 만들기 -남들의 시선 의식하며 적당한 긴장상태 유지
밥 시간	세월아 네월아 밥만 먹기	강의 다시 들으며 적당한 휴식 취하기

## 2. 지역선택 기준

저는 지역선택을 할 때, 교직만족도가 높은 지역에서 교직생활을 하겠다는 마음과 부모님의 노후생활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실기는 석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소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강원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원도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단 1명을 뽑아도 내가 붙는다.'라는 주문을 걸며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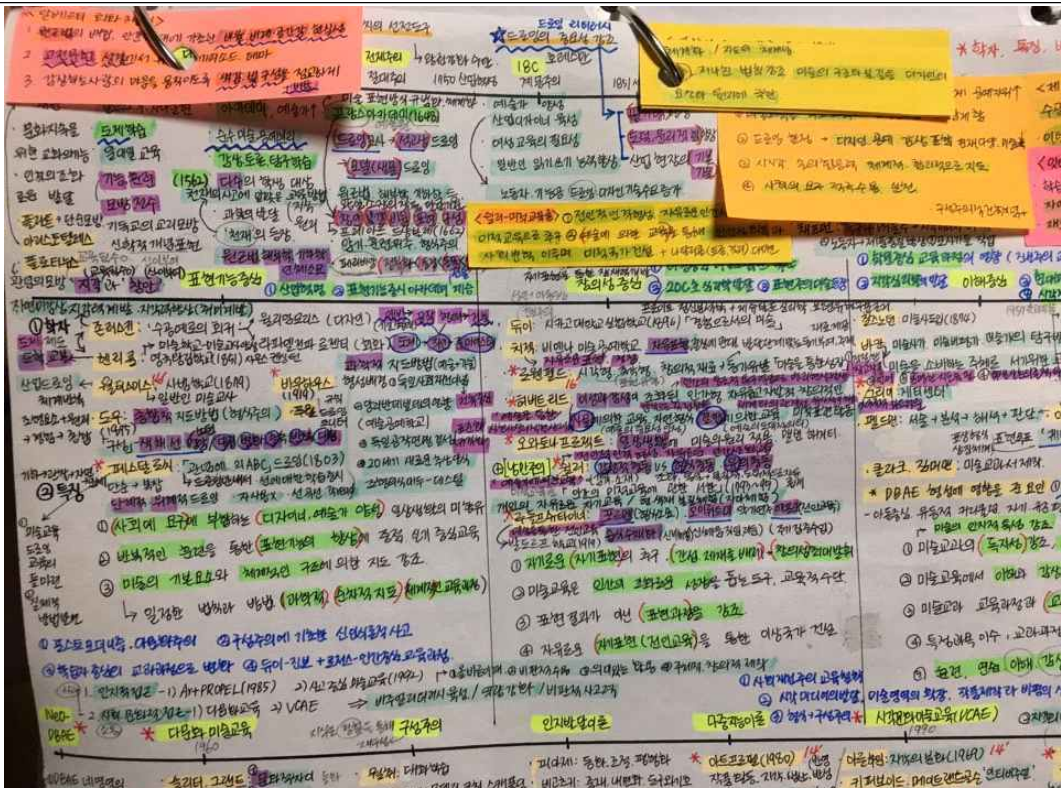
## 3. 공부방법(교육학, 전공)

교육학은 이론 강의는 듣지 않았고, 2월부터 4월까지 짜스터디를 통해 이론을 정리하며 간단한 백지쓰기와 구두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두인출은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6월에는 객관식 기출과 논술 기출을 정리하며 단원별 예상문제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객관식 기출에 가장 빈도가 많은 경우 5월부터 문풀을 통해 구두인출과 글쓰기 연습, 7월부터 11월까지 이선화 파이널강의를 들으며 마무리 했습니다. 교육학은 여러 강사의 문제 스타일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요 작성과 피드백을 통해 중복되는 중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서론과 결론도 일정한 형식의 틀은 갖추었지만,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도록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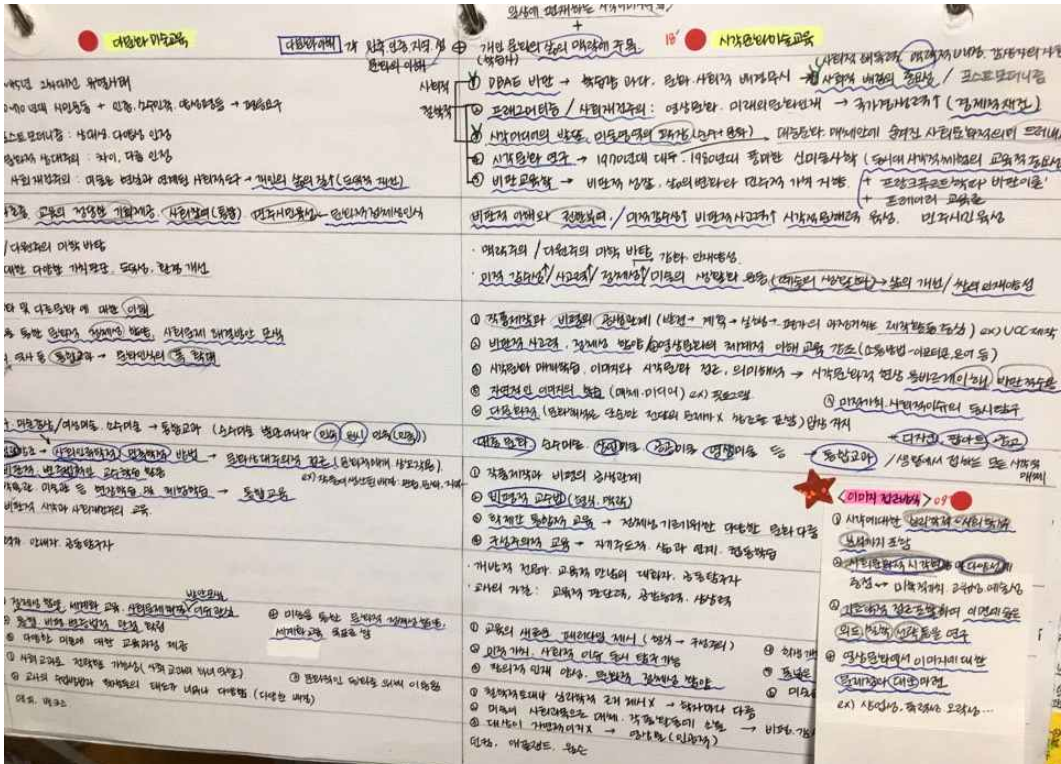
1-2월	짜스터디 -간단한 백지쓰기(단원별 키워드) -구두인출 + 피드백
3-4월	짜스터디 -간단한 백지쓰기(단원별 키워드) -구두인출 + 피드백
5-6월	짜스터디 -객관식 기출문제 정리(단원별 예상문제 뽑아보기) -논술형 기출문제 글쓰기 연습 + 피드백
7-8월	그룹스터디(4명) -단원별 모의고사 풀기 -권지수, 윤승현 모의고사 개요 작성 + 피드백 -권지수, 윤승현, 이선화 모의고사 中1 회 시간재서 풀고 피드백 + 개념 정리
9-11월	그룹스터디(3명) -권지수, 윤승현 모의고사 개요 작성 + 피드백 -권지수, 이선화 모의고사 中1 회 시간재서 풀고 피드백 + 개념 정리

전공은 1-2월은 다른 강사를 인강으로 듣다가 2월에 장지연 선생님과 상담 후 위상 미술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3월부터 11월까지 직강을 나갔습니다. 위상 미술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유일한 팀티칭으로 각 분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근과 채찍질을 적절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 대해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강의 도중에 하시는 말들은 뼈와 살이 되어 강인한 멘탈을 만들어줍니다. 스터디는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교과서 도판 정리 스터디, 교육과정 인증 스터디 / 오프라인으로는 직강 후 복습 스터디 → 유일한 저의 힐링 스터디였습니다.♥)

1-2월	<b>서브노트 작성, 문제점 파악, 필독서/사전 훑기</b> -초수때 수기로 작성한 서브노트를 필요한 단원부터 워드작업으로 작성 + 필요한 부분 수기로 작성, 여러 강사 기본서 필요한 부분 뜯어서 끼워넣기) <u>서브노트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u> 저처럼 서브를 작성하며 공부가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장지연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효율적인 공부방향 설정
------	--



(↑ 초수 때 수기로 작성한 서브노트 / ↓ 재수 때 수기로 재정리한 서브노트)



-미술교육론의 경우 위상미술의 심화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심화자료를 바탕으로 수기로 다시 작성하며 정리하여 서브노트는 암기용, 심화자료는 빨간펜으로 치며 확인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강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뜯어서 추가하기도 하고, 기출내용을 덧붙여 정리했습니다.

(↓재수때 필요한 부분 위드로 작성한 서브노트)

신라		통일신라		
<p><b>유물상 특징</b></p> <p>1) <b>연형</b> → 인체의 조형성 반영, 자연주의적, 세련된양식으로 발전 (<b>연형사상</b>) 적 양식 자리잡으며 석굴암 조각 탄생의 기틀 마련</p> <p>북국 복위 동위 불상양식(반으로 신라화 진행) -7C초: 반가사유상 제작(7C초 전성기, 7C말 퇴색기) -수·말: <b>연형</b> → 인체의 조형성, 유연함(신체의 변형, 옷주름 변화), 자연주의적경감 예: 부도러운 인간미, 차분한 신라적 양식 정착 → 석굴암조각 탄생의 기틀 마련</p>	<p><b>특징</b></p> <p>1) 신라 사방불 형식의 수용과 전개 2) 약사불상(무병장수 영험) 유행 8C: 유리나라 독자적 양식 형성, 불교조각의 절정기, 양간과 불간간 강조 → <b>이승우의 새 불조각</b> 9C: 선종의 영향 1) 조각기법 쇠퇴, 절불 등장, 2) 형식화, 이상이 변질, 법칙 거부, 역사서려 유행 (<b>유물상 사상적 경향</b>)</p>	<p><b>7C</b></p> <p>-신라적 세련미와 장식적 경향 -옷은 벗어내며 양주름을 펴냄 -옷주름을 세련되게 아래로 크게 늘어뜨림 -연대적 양식기 -신체비례와 신체의 조형과 조화</p> <p><b>초기(7C 후반): 도교적 사상의 영향</b></p> <p>-신령의 -연속적 부조로 신체를 강조하여 -이상에 대한 경이감을 -조형에 대한 경이감을</p> <p><b>중기(8C): 리얼리즘 사상의 유행</b></p> <p>-8C 말까지 계속된 -화강석 신체의 사실적 표현 -불신, 광대, 귀족 -원칙한 형식의 조각상</p> <p><b>후기(9C): 자연주의 유행</b></p> <p>-강제적으로 보이는 -두꺼운 옷을 -신체비례의 조화 -원근감 -오래된 절불상 -이상의 경이감을 -조형적 경이감을</p>		
<p><b>6C</b></p> <p>-심연권 -상하 전의 양은 모습 -개달음의 법칙을 가장 잘 표현(미소) -우아한 선의 착용, 장식이 추구 -얼굴은 물만나 약간 모가 나고 눈을 반쯤 내린 채 미소를 띠고 있으며 코와 입이 선이하여 조각 -옷주름의 굴곡미와 인장감 추구</p> <p><b>양식적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나서 유야 완비한다</b></p> <p>-심신권 (인상적 경향 포함) -상을 벗은 동자 모습 -가장 큰 금동 반가사유상 -장식 절제로 자유의 순수성 강조 -목사공은 얼굴, 여상의 체형에서 신비로운 고졸한 미소 -허리나니 부처가 길게 고쳐하며 영성애를 갖았던 모습 형상화</p> <p>-이후 반대의 경향과 조형적 표현의 변화</p>	<p><b>7C</b></p> <p>-인연상 -통통한 얼굴 -상체가 길고, 다리가 짧아 어린이와 같은 신체 비례 -신체비례의 강조 -단순한 형태와 둥근 입술</p> <p>-중국 북조, 북제 또는 수대 불상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불상 양식 -생동, 사실적</p> <p>-양식사상적 경향은 동조 동세사상적 경향으로 변화 -상하의 -이상의 -자세가 이물다움 -여성의 -형식적 인간성 -이상의 경이감을 추구</p> <p><b>중기(8C)</b></p> <p>-절물주조 -사막인 -얼굴(모양) 사실적 인체 표현</p> <p>-가면적 -가면(가면)의 -사막인 -조각의 -조각의 -조각의</p> <p><b>후기(9C)</b></p> <p>-강제적으로 보이는 -두꺼운 옷을 -신체비례의 조화 -원근감 -오래된 절불상 -이상의 경이감을 -조형적 경이감을</p>			

-미술사의 경우 도판과 함께 시대별 흐름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한국미술사는 불상, 도자, 탑, 건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야미술사 인도, 일본, 중국 나라별 흐름정리, 서양미술사는 사조별 특징 정리)

서예	
<p><b>문법</b>을 움직이는 것, (필선) 붓을 움직일 때 생기는 기세) (필의) (글씨 속에 표현된 각자의 감정과 취향)</p> <p><b>서예의 3요소</b>: 형태미, 취미, 유희미</p>	<p>한문 서예 (10)</p> <p>문법(붓을 움직이는 것), (필선) 붓을 움직일 때 생기는 기세) (필의) (글씨 속에 표현된 각자의 감정과 취향)</p> <p>서예의 3요소: 형태미, 취미, 유희미</p>
<p><b>문법</b>을 움직이는 것, (필선) 붓을 움직일 때 생기는 기세) (필의) (글씨 속에 표현된 각자의 감정과 취향)</p> <p><b>문법</b>을 움직이는 것, (필선) 붓을 움직일 때 생기는 기세) (필의) (글씨 속에 표현된 각자의 감정과 취향)</p>	<p>한문 서예 (10)</p> <p>문법(붓을 움직이는 것), (필선) 붓을 움직일 때 생기는 기세) (필의) (글씨 속에 표현된 각자의 감정과 취향)</p> <p>서예의 3요소: 형태미, 취미, 유희미</p>

-표현파트의 경우 단순암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워드작업하여 정리하고, 반복암기,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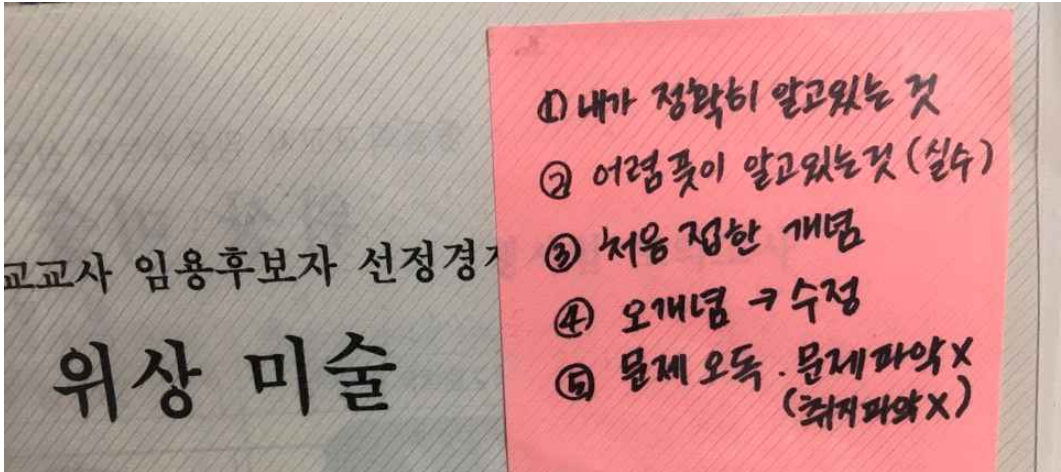
1-2월 강의 듣기, 서브노트 작성, 필독서 스터디, 직장 후 복습 스터디, 교육과정 암기 시작

3-4월

-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작되기 전 표현파트, 미술사 영역의 서브노트 완성
- 필독서 읽은 후 문제 내서 풀고 확인하는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
- 직강 수업 후 이론 확인하는 복습 스터디 진행
- 교육과정 암기 시작(노래X, 무식하게 암기)

단원별 문제풀이, 문풀 교환 스터디, 직장 후 복습 스터디, 교과서 온라인 스터디

- 문제풀이 예상문제 확장하기
- 문풀 교환 후 중요한 내용 확인하는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
- 교과서 출판사별 중요한 도판 캡처하여 올리는 온라인 스터디 진행



-합격수기에 어떤 분이 올려주신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①내가 정확히 알고있는 것, ②어렵것이 알고 있는 것(실수), ③처음 접한 개념, ④오개념, ⑤문제오독, 취지파악X으로 나누어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 후 여러 번 회독했습니다.

5-6월

8. 다음은 추진 말기에 화단을 이끈 두 작가의 작품이다. 아래 <작성 방법>에 따라 논하시오. [10점]

서연호 그림을 그림 → 강담, 신비의 기원, 새의집, 생애의 강생에게, 풍채

마지막으로 아이스너(Eisner)가 제시한 미술비평의 여섯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가) 작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험적 요소** 측면에서 풍채로 그린 것이 **까슬까슬한 느낌**이 든다. **형식적 요소**는 중앙에 오두막집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 있는 모습으로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이룬다. **상징적 요소**는 작품의 소재에 따른 의미 추정과 은유를 해석하는 것으로 노송은 김정희로 뛰어난 가지 끝에 난 솔잎은 희망을 상징하며, 짧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자신을 찾아온 제자 이상적을 상징한다. 또한 단출한 가옥은 유배지의 쓸쓸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다. **주제적 요소**는 작품안에 구현된 생각이나 사상을 다루는 것으로 '세한도의 소나무와 잣나무는 침묵수로 수운 거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아 선비의 저조를 표상한다. **재료적 요소**는 주제와 형태를 잘 드러내기 위한 재료로 김정희는 종이에 **수묵으로 간결하게 빠른 갈필로 감정을 배제하** 채 초연한 심정을 표현했고, 칩박한 곳에서의 유배생활을 드러냈다. **사회문화적 요소**는 작품의 배경을 살피는 것으로 1844년 조선 후기에 그려진 세한도는 제주도에서 **역향살아**를 하고 있는 자신을 잊지 않고 귀한 책을 중국에서 구해다 준 **역관 출신인 제자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그림이다.

\* **채점 기준표**  
당위기준에 **대응의 수비**  
의정 방법

→ **고정성** 아래서 **담채, 기암동식 (2개씩, 표현방법)**

• 김정희가 주장한 **문자향(文字香)**과 **서연기(書煙氣)**, 조희룡의 **수예론(手藝論)**에 대해 설명하고, 그를 실천한 두 작품의 특징을 비교 서술하시오.  
↳ **문자향에서 주장한 것**은 **문자향**이 **필획**을 통해 **사물**에게서 나오는 **이치**

• (가)의 **지붕** 형식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유배지, 단출한 기법구조** → **노년적, 경험**

• 그리고 아이스너(Eisner)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에서 '경험적 요소', '형식적 요소', '상징적 요소', '주제적 요소'를

-모범답안의 키워드는 동그라미, 확장되는 문제는 문제 위에 빨간색펜으로 표시, 파란색펜으로 추가내용을 작성

-직강 후 스터디원들과 함께 확장되는 예상문제를 뽑아내고, 그 다음주에 구두인출하며 정리

-직강 후 교육과정 백지쓰기 또는 구두인출 암기

**단원별 모의고사, 백지쓰기 인증, 첨삭내용 반복 연습, 확장**

- 단원별 모의고사 내용 정리
- 단원별 중요한 내용 백지쓰기 인증 온라인 스테디
- 대면첨삭 적극 활용(다른 분들의 답안과 내 답안 비교, 키워드 채워넣기 연습)

**작성 방법**

- (가)의 작품이 속한 미술사조가 (나)와 (가)와 (나) 작품에 나타난 **공간** 미술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 마이클 프리드(Michael Fried)가 (나) 면에서 설명하시오.

**\* 채점 기준표**

(가)의 사조가 (나)의 미니멀리즘에 미친 영향 : 1점	총 10점
(가), (나)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 개념(각 2점), (나)의 미니멀리즘 조각이 이후 미술에 미친 영향(1점) : 합 5점	
마이클 프리드가 (나)의 조각을 비판한 점(2점)	
글의 내용 구성력 : 2점	

**답례문**

① **구성주의(구축주의) 미술** + 기계생명의 결합 형태  
 1917 카운터포르제적 / 비전선적 구성에 도달  
 ② '공간' (가) 프롬(praum) - 새로운 예술을 위하여'  
 유희라와 건축의 교차역과 같은 새로운 공간표현  
 수직특성방식에 의해 반합의적일지도 모자  
 전통적인 타인의 공간거부 + 대량생산을 위한  
 실용적 대한 주구 실체문화사용 일체적 구성물적화  
 과학적, 합리적 공간배치 → 키네틱아트, 라도메, 시스메익 테라타에 영향

④ 마이클 프리드 (비판) vs 조각의 크리크스 (찬양)  
 사물성 - 광물성, 영구성 - 시공간성  
 조각은 처형된 일체성, 정적, 장리의 지속성이 없다며 비판  
 조각 영역의 확장, 움직임-세면, 주변의 환경, 정물, 풍미유안  
 → 키네틱아트 (공간 + 향기 + 광각) + 라도메움 (공간 + 향기 + 광각)  
 (예) 모놀리나기 1930.  
 (공간) 정교하게 조각된 방의 두라를 통해  
 키네틱아트, 라도메움, 키네틱아트, 라도메움, 키네틱아트, 라도메움, 키네틱아트, 라도메움

7-8월

-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기본 교재, 필독서 참고하여 내용 추가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이 지도안에 적합한 성취 기준과/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시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미술의 중심이 작가에서 관람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모더니즘 시각에서 제시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소 고등학교 위 교사는 뱅크스의 '변혁적 접근'을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가)와 (나) 작품을 모더니즘 시각에서 감상할 때 의미해석이 어려운 이유를 변혁적 접근을 활용하면 작품의 의미 해석이 쉬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다문화 미술교육의 교육적(의의)을 서술하시오. < 작품의 맥락과 이해 >**  
 • 답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논술하시오.

**VS**

② (가), (나)의 작품을 후 모더니즘 시각에서 <다문화 미술교육의 교육적(의의)를 서술하시오.>  
 각각의 와유, 의미는 파악하기 어렵다. 주체적인 이해는 (가) 한층려해 이후 사회적배우리의 공간을 배워들이려서  
 작품의 거부 상충적인 거대성으로 고려. <다문화 미술교육의 교육적(의의)를 서술하시오.>  
 (가) 다양한 언어, 문화, 전통을 이해,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 (문부적인 표현법)  
 (나) 다양한 언어, 문화, 전통을 이해,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 (문부적인 표현법)  
 < 수고하셨습니다. >  
 교재를 통하여 학생들의 개인적인 비교로 공부하는 방법을 도와주고  
 대면 수업의 다양한 이해와 문제를 이해하게 하여  
 이들의 가능성을 이념하고, 비록 짧은 시간동안 학습자들이 충분히  
 < 수고하셨습니다. >

-점검색펜은 문제 작성시 내가 작성한 키워드, 파란색펜은 모범답안 및 키워드 추가

**파이널 모의고사, 첨삭내용 반복 연습, 확장**

-단원별 중요한 내용 백지쓰기 인증 온라인 스터디

-대면첨삭 적극 활용(다른 분들의 답안과 내 답안 비교, 키워드 채워넣기 연습)

<p><b>문항 9</b> (4점) 1.5</p>	<p>(가)는 인간중심사상이 반영되어있으며, 사과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이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상징한다. (나)는 신경중심사상이 반영되어있으며, 사과는 선택과 심판의 결정을 상징한다. 학동류또는 '시공문'과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이다. (나)의 선택과 관련된 내용은 대의 세 여신 상미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관할해달라고 파르스의 양에서 삼이신과 서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으며 파르스는 내신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p>
<p><b>문항 10</b> (4점) 3.8</p>	<p>첫째, 도사로 임금이 살자있을 때 제작한 것이며 정략적이 그칠 수 있다. 둘째, 추사로 임금이 승하한 뒤에 제작하는 것이며 정략하게 그리는 것이 어렵다. 셋째, 묘사로 어린이가 훼손되었거나 임금이 죽은 후에 기존의 어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가)는 묘사이며 (나)는 도사이다. 조형적 차이점은 첫째, (가)는 전신상으로 그려졌으며 정면상인 반면, (나)는 반신상으로 그려졌으며 좌(나)를 명으로 즉 시를 대우그림자) 위와 좌우로 각각 반반, (나)는 명상이다. 둘째, (가)는 각인외음 표현과 비슷한 형태로 일체하게 그려진 반면, (나)는 자연스러운 의상표현이 나타난다. 셋째, (가)는 배경에 소용돌이 배치가 되어 있다.</p>
<p><b>문항 11</b> (4점) 3</p>	<p>(가)의 문체장은 첫째, 일보의 쇠잔주의적인 냉소주의적 관조의 성격 등을 전할의 모습을 반영하여 뜻깊고 위엄있고 태극의도를 하여 미술가들이 전장에서 반응 등려로 양에게 되었다. 둘째, 문체장치의 수단으로 능률사리를 권장하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한의적 발상을 역설하였다. (나)의 구분관용이 육요에서 나온 영방은 조선주의적인 정경관 유희의 색채, 기법 표현의 양태 나타내는 대의적, 같은 윤곽선의 표현이다. 한체장은 자신만의 독자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표현적인 특성에서 미흡하게 되었다는 점이다.</p>
<p><b>문항 12</b> (4점) 4</p>	<p>(가) 불속관한, (나) 오유관한이다. ㉠ 가장 이상적인 경태로 이여자가 신명하고 정경하게 표현된다. ㉡ 일요가 아래부분에 모여서 등쳐서 반기게 되거나 개괄한 양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 일요가 완전히 등쳐져 나타나 오유가 등쳐져서 이미지가 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 배드유에 보류자나 경자. 필트를 유리는 이윅은 또한 프레스기의 강한 양력을 견디고 오유한 부분의 일요자, 잘 들림서 나옴을 뒤기 위함이다.</p>

-서술형 문항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문제는 모범답안을 보며 다시 작성하고, 다시 백지쓰기 연습을 통해 빠진 키워드를 추가하며 교정하였습니다.

9-11월

<p><b>문항 1</b> (4점) 3.5</p>	<p>이 과는 표현중심 미술로써 낮 과는 경의정성 미술교육이다. 위 과는 (나)표현을 활용하여 미술의 학문의 기원과 미술사, 미술제작, 미술비평, 미학을 등일하게 분배하여 미술학문의 이해와 감성에 조응을 갖는 체계적인 교육과정들을 통해 학업과도류 지도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 과는 (가)도판을 활용하여 다양한 양태와 자화상체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의인용적적인 접근 해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분석한다. (가)는 진의 정는 전위체계를 일방정제를 빛으로이 이동하거나 변해서되는 것이며, 각자는 유력정형에서 붉은 원형적사이다. 그리고 정제성을 배려한 계세사상은 변세에서의 삶이 내세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가)원운법이 적용된 것으로 뒤쪽으로 양의정수쪽 뒤편이</p>
<p><b>문항 2</b> (4점) 3.3</p>	<p>가네 크기가 커지게 표현하여 대담이 강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보여진 것은 뒷면까지 그려질 수 있다. 두요의 기법은 목질을 수증하는 장례의식을 행할때 화장용화로 사용한다. 표현기법은 원반으로 소으로 뒀에서 형태를 만든 후 테라코라를 900C의 온도에서 구워진 것이다.</p>
<p><b>문항 3</b> (4점) 3.6</p>	<p>공용된 주제는 죽은이다. (가)보다 (나)에서 주제적 긴장감이 잘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개성과 골라진 램들의 모양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였다기 때문이다. 둘째, 배경을 사용하며 정형적이고 감성이 절제된 느낌과 차이를 느끼게 때문이다. 셋째, 공상을 전유방 정으로 압도하고 냉정적이고 어두워지거나 노란 형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져온다. (가)는 실제 사물의 두께를 나타내어 커다란 사용한다. 대역아문도를 부각한 것으로 인 반면, (나)는 형태 제작쪽 캐스팅하여 반투명적으로 드러내어 제작했기 때문에 빛의성을 지닌다.</p>

-서술형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만 답하는 것입니다. 점수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모범답안을 참고하여 키워드를 풍부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논술형 문항은 제가 가장 자신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출제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낮은 점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면첨삭을 적극 활용하여 점수가 높게 나오는 분들의 답안을 제 답안과 비교하고, 장지연 선생님의 따끔한 피드백을 통해 교정되도록 했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직장 스터디원들과 백지쓰기 온라인 인증 스터디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했습니다.

**실기-석고정물소묘**

- 필수정물 : 아그리파, 삼선 슬리퍼, 엠보싱이 있는 시트지, 2L 유리병 (4가지)
- 선택정물 : 대파, 테니스공, 테니스공 담는 통(원기동), 주전자(스搪), 사과, 장미꽃, 스搪 그릇(대야같은거) 등 (2가지 이상)
- 조건 : \*엠보싱이 있는 시트지 질감 반드시 포함하여 표현할 것
  - \*필수정물 포함한 정물 6가지 이상 표현
  - \*연필을 사용한 소묘 조형요소와 원리를 포함할 것
  - \*정물 크기, 위치 자유롭게 배치
  - \*석고상은 반드시 전체 표현할 것
- 환경 : \*좌대X > 석고상이랑 정물이 바닥에(엠보싱이 있는 시트지 위에) 놓여져 있었음
  - \*240분 다운 카운트 되는 대형 전자 시계
  - \*총 16명 응시 > 6명, 5명, 5명으로 나누어져 3반으로 나누어들어감
  - \*나무화판, 3절, 윗부분에 작은 집게 두개 이상 있었음(아래부분은 압정으로 고정하도록 함 - 안써도 됨)
  - \*붉은 커텐쳐져 있고 자연광
  - \*문제지 A4 용지에 인쇄하여 수험생에게 나누어주고 문제 숙지 후(5분 정도 시간 쯤) 시험 시작

2차

저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고의 전환으로 입시를 치루고 1여년정도 입시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묘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지역 선택할 때 소묘를 보는 지역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겨울특강때 백송미술학원에 등록하여 태어나서 처음으로 석고정물소묘를 준비하게 되었고 첫 일주일엔 석고만 카피 뜨며 형태를 익혔습니다. 석고를 측정해서 화지에 옮기는 것부터 석고의 인상을 잡는 것, 색감을 풍부하게 까는 것, 명암을 이해하는 것, 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구도를 잡는 것, 정면과 반측, 완측에 따른 표현, 여러 석고 중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등..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지역을 응시한 분들은 대부분 석고를 한 번쯤은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상대가 되려면 평달에 준비 좀 해놓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재홍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때로는 채찍질 같은 날카로운 말(이게 더 많았던 것 같기도..^^;)들로 잘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석고정물소묘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석고를 단 한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평달에 무조건 실기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ㅠㅠ 안 그러면 저처럼 특강 준비기간 내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이 넘어가서 시험연습이 시작되었을 때 석고가 그리기 싫어서 정물 완성도만 높게 그린 적도 있고, 석고만 제대로 그리고 정물을 날려 그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고정물소묘는 석고와 정물, 공간감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단기간에 석고정물소묘를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막판에는 4시간 안에 석고와 정물과의 전체적인 조화에 신경을 쓰고 완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고의 전환을 했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모든 정물에 힘을 주고 그렸던 것을 점차 힘을 빼는 연습, 색감을 더욱 풍부하게 하려고 바꿔 연습했습니다. 학원에서 모의시험을 볼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취약한 석고, 정물, 방향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석고와 이젤의 거리를 때로는 짧게 또는 멀게 두고 연습해보기도 하고, 틈날 때마다 석고 인상 연습을 하고, 좋은 구도(정물 배치)를 간단하게 스케치 해보기도 하고, 시험 본 것을 사진



찍어 피드백 내용을 바로 다음날 반영하는 등 남들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한 실기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준비기간동안 실기와 면접, 수업시연 3박자의 흐름을 잘 타면서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소묘를 보는 지역끼리 한 공간에서 진행하여 정물소묘를 보는 전북, 전남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림(정물 표현)을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지역을 준비하는 분들과 경쟁적인 구조가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 준비했던 것도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 수업시연-지도안X, 15분

수업시연은 1차가 끝난 후 가장 마음이 잘 맞는 분들과 수다 떨듯이 가볍게 어떤 단원, 주제가 나올까 예상하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차 발표난 후에는 다른 지역 분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연습했습니다. 따로 스테디룸은 이용하지 않고 900X1200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여 실기가 끝난 후 집에서 영상을 찍어 밴드에 업로드하고 서로 피드백하였습니다. 매일 밤 진행했기 때문에 '피드백 받은 내용을 한가지씩만 고쳐나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원원하자는 마음으로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2차 수업시연을 장지연 선생님 앞에서 할 때 5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앞에 있었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장지연 선생님의 무표정에 별별떨고 눈치를 보며 15분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사를 힘차게 하는 연습과 면접관들이 어떤 표정을 짓든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웃지 않고 떨지 않고, 눈치보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스테디룸들과 컨셉 정해서 서로 수업시연을 봐주는 것을 연습하고나니 실제 시험장에서도 떨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도안이 없는 지역이지만 초반에는 지도안도 함께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 수업을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충분히하고, 이후 어느 정도 연습하다보면 일정한 틀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도 어떻게 적용할 것이라는 자신만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턴을 도입-전개, 전개-정리, 전개 등 파트를 나누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써서 멘트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시험장에서 첫번호, 중간번호, 마지막번호 등의 경우를 생각하여 멘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간번호의 경우 '여러분 점심먹고 나서 너무 졸리고 피곤하죠? 그래도 우리 3반은 매시간 미술수업에 집중 잘 하는 거 아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하도록 합시다!' 와 같은 멘트를 친다면 면접관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 면접-자체출제, 구상형1문제, 즉답형3문제

강원지역은 면접이 자체 출제로 거의 시책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시책공부를 위잡듯이 해야합니다. 하지만 평가원지역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춘 면접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고, 답안을 구조화하여 말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가 끝난 직후 온라인 스테디룸 면접 녹음스테디룸을 진행했습니다. 강원지역을 응시한 다른 교과 분들을 겹치지 않게 모집하여 면접 녹음 후 서로 피드백하고 시책을 암기하여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다른 교과 분들과 함께하면 다양한 답변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프라인 스테디룸에서는 자세와 표정, 시선처리 등을 교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했습니다. 또한 면접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게릴라 면접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근처 스테디룸 예약가능한 시간에 모조리 예약하고, 매번 다른 스테디룸을 모집해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연습했던 예상문제에서 많이 나와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 기타

생활스터디, 스케줄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육학	D- 3기 일	D- 3기 일	D- 3기 일	D- 30 일	D- 29 일	D- 18 일	D- 17 일	
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위 10회 V + RV V</li> <li>서보자기 (보) + D2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연박 대표 → V + RV</li> <li>* 사수있습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익민교 A, B, C → V</li> <li>중미 V</li> <li>미학 V</li> <li>조명사 (도라 불꽃 춤) → V</li> <li>컨설팅 → V</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익민교 A, B, C → V</li> <li>서미 → V</li> <li>안익민교 A, B, C → V</li> <li>② 캐치업 → V</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연에게 응용 → V</li> <li>② 유호 → V</li> <li>② 교차계면방법 + 비특지</li> <li>서미 부경민에게 (남한 심의인 사형) → V</li> <li>(남한. 영희(국가유공자)) → V</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민교의 + RV → 지리예 V</li> <li>서보자기</li> <li>이연박 대표 → V</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서우 19</li> <li>서보자기 V</li> </ul>
06:00								
07:00								
08:00	10회 + RV			10회 + RV				
09:00	서보자기	서보	서보 + RV	서보자기		서보 + RV		
10:00		서보				서보 + RV		
11:00								
12:00								
13:00								
14:00	② 유호자기							
15:00	대안나							
16:00	영남D							
17:00								
18:00								
19:00								
20:00	부경민 + RV							
21:00								
22:00	비행사	비행사	비행사	비행사		비행사 + RV		
23:00								
01:00								
02:00								
03:00								
표 시간	12 h	12 h	12 h	12 h	h	h	12 h	
부 시간	10 h	12 h	11 h	9 h	h	h	11 h	

-스케줄표는 교육학, 전공, 1시간단위 시간, 목표시간과 공부시간을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는 칸을 두어 하루를 끝낸 후 나 자신에게 칭찬하는 타임을 두었습니다. 목표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격려의 한마디를 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생활스터디는 친한 친구와 함께 입실 인증, 점심먹고난 후 인증을 했습니다. (퇴실은 자유) 도서관이 휴일일 때는 다른 지역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기분전환도 하고, 공휴일일 때는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음의 친구를 만들어서 '저 사람보다 늦게 퇴실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남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암기

표 - 실관사정표	표 - 관자정표	미어 - 발판형서
감 - 발판평감서	표 - 관자정표	미어 - 발판평서
체조반관	미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비적 경험에 반응하면
체조프로그램	시	변화하는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와 정보, 시각 매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활용한 미술
장독프로그램	생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미술활동 과정에 타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비주얼언어	이	우리의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프젝트	자	미술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를 개발,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

탐	미작각 다정수분 / 그 특의탈	탐	정
탐	다원미특 변과 / 사문맥 미작의해	탐	탐
반	다방이 에 대서반 / 정보평	탐	탐
비		탐	탐

반응	반응	반응	반응	반응
판단	판단	판단	판단	판단
조	조	조	조	조

-교육과정은 정말 무식하게 암기했습니다. 아침에 도서관에 들어가자마자 백지쓰기, 공부안될 때 음악들 으면서 백지쓰기, 청킹, 구두인출 등 올해는 교육과정 암기가 무색할 정도로 허무했지만 임용에서 한 문 제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꼭 필요한 것이 교육과정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파트 암기**

		분류판화	
목판화	우드컷 (선화) 우드인크로세팅 (선화)	(세라믹) 유화 (수화) - 각종 색채의 표현 (시각적) 강한 내구성과 화려 유연성에 대한 표현	제작과정: 말그림그리기 뒤집어서 판지에 옮기기 → 잉크를 얇고 바르기로 판질과 건조
지판화	플라그라피 각판화	여러가지 대안개념의 경우 + 점 여러가지 대안개념의 경우 두께 비정확하게 다: 판화용도 판: 판화용도	
각판화	여러가지 판화 방식에 비해 용이하고 양질의 판화 → 각판화 방식에 비해 용이하다.		
판화개념 (리얼리즘 판화)	단한 대상인판. 유화판의 영향과 판화가 바뀌는 기법 개입 제작과정: 판화의 판에 이미지를 세로로 판: 하나의 판을 각이각해서 판화 → 판화 유: 판의 판화판화 판화 판화	비밀개념. 판화개념의 중요성 판화개념의 중요성	
판화개념	판: 판화개념의 중요성 유: 판화개념의 중요성	판화개념의 중요성	
판화개념	판: 판화개념의 중요성 유: 판화개념의 중요성	판화개념의 중요성	

-표현파트는 단순암기이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작 과정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유튜브를 활용 하였고, 백지 반복 암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출분석**

1) 프리델(F. W. A. Fröbel)은 아동이 자신의 형태와 유형을 통해  
다양성 속에서 (단일성) 찾을 수 있도록 (은둔)을 고안하였다.

2) 1873년 베사우세츠 주정부의 후원 아래 미술교육가를 훈련시  
키는 최초의 사범 미술학교가 설립되었다.

3) 듀이(J. Dewey)가 설립한 뉴욕 대학교 실험 학교는 미술이  
학교 체제에서 각 학년의 모든 아동에게 기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1916년**

4) 다투(A. W. Dow)는 저서 '구성(Composition)'을 통해 디자인  
의 (요구)와 (신리)에 기초한 미술교육 방법론을 주장하였다.

5) '오와다나 프로젝트'는 생활 속에서 미술에 대한 요구가 어릴  
게 학교 교육과정에서 완성되며,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질 수 있  
는지를 논한 것이다.

(2011) DBAE

1. <보기>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실시된 시대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가. 미술은 문명이 생산해 낸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이며, 위대한  
미술 작품이 학습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 교육 프로  
그램이다. 게티센터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미술의 수월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DBAE 나선형 모델위계론**

나. 초등 교사의 미술 수업에 활용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수업 영역, 개념 또는 표현 양식, 원리 또는 매체, 이론적  
근거, 목표, 동기 부여 활동, 학습 활동, 수업 보조 매체,  
**평가 절차의 순서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게티링(1969)**

다. 선속론 통해 조형 예술을 (통합)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원형(prototype)을 제작하는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요소가 미술교육의 기초라고 인식하였으며 **기능  
주의** 디자인 이념과 표준화된 접근법이 특징이었다. **바우하우스**

라. 소수의 지루권이 훈련보다는 **모든 학생의 취미 개발(1919)**  
위해 미국에서 실시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판단력의  
함양** 미술 분야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상업 미술 산업,  
인쇄, 조각, 사진 디자인 원리** 선택을 가르쳤다.  
**사민주의주의: 경제적 개선** **오와다나프로젝트**

두이 **생활학교**

통합(학교과정은 어차피)  
이적방법  
통합교과 교육과정

게티링 **DBAE**  
게티센터  
(2011) DBAE  
동일과정비행  
(교과서/교과안)

기초  
미술교과서 독자성  
인정

04 프리드리히 vs 모네 vs 브리크  
→ 낭만주의 인상주의 양극의

16. 04 해프닝  
11. 미니멀리즘 vs 아르테포베라  
→ 재료의 특성 의미

16. 바토 vs 대드  
→ 구조론, 신구조론

17. 13 페미니즘  
→ 여성성, 제작방법, 과정  
05 형제나눔 조각 조형적 특징

18. 화이트라드  
→ YBAs-제작방법, 주제  
✓ 증세-수태교의 상징적 의미, 긴장감  
✓ 로마 vs 극사실주의 조각 비교

1933년, 콘크리트

나) <모뉴먼트>, 2001년, 투명 레진

나라질 가옥을 이용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4개월 만에 철거되었다.  
과대 프로젝트(The Fourth Plinth Project)로 전시되었던 작품으로,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

<작성 방법>

1. 작 방법을 쓰고, 이를 통해 구현된 공간의 특성을 서술할 것.  
주제를 기념비의 속성과 관련하여 각각 서술할 것.

1. 거북집을 만들어 형용 그대로 떠나는 수목기법 → 캐스팅.

2. 모뉴먼트와 레진이 서로반전 → 기묘의 공간개념의 전복

-기출분석은 영역별, 년도별 두 권으로 분리하여 내용적인 측면과 예상문제 측면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친한 친구와 예상 출제문제 목록을 만들어 9-11월에 백지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지극히 올빼미형이어서 아침에 알람을 수십번 맞춰봐도 잘 못일어났습니다. 알람어플 중에 'sleeptown'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매일 아침 건물을 세우는 재미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건물이 생기고, 못일어나면 건물이 부숩니다. 건물이 부숩으면 마을이 파괴되고 마을이 찢어지기 때문에.. ㅋㅋ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처럼 아침에 못일어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운동**

-상반기까지 체력을 비축해두어야 2차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매일 1시간씩 런닝머신을 했고 8월부터는 따로 시간내서 운동하기 보다 스트레칭, 걷기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동기부여, 임용을 생활화!**

-임용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볼펜을 클리어하는 재미를 느끼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며 묘작도가 생각이나고, 길을 걷다 나무를 보며 해조요법을 생각하고, 교통 표지판을 보며 색의 기능에 대해 생각하는 등의 소소한 행복찾기를 해야합니다. 때로는 성적체크도 하면서 잘할 때는 나 이만큼이나 해냈어! 하고 성적이 잘 안나올 때는 더 잘할 수 있어! 이것만 고쳐보자. 하며 자신을 토닥거리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 됩니다! 행복한 임용생활을 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5. 합격수기를 마치며**

수험기간 중에 많은 위로를 받은 시를 소개하며 합격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교단에서 뵈겠습니다!!

*별은 너에게로*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은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